

語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미를 가지는 언어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이다. 여기서 '가장 작다'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개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따라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크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고 할 때의 '의미'에는 어떤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법적 의미까지도 포함된다.

형태소에는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있는 반면,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단어가 되는 의존 형태소도 있다. 즉, '흙', '나무' 등은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이지만, '읽어라'의 '읽-'은 '읽으니, 읽고, 읽게'처럼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문장에 쓰일 수도 있고 단어 행세도 할 수 있는 형태소이다.

그래서 단어는 대체로 자립 형식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받는다. 자립 형식이란 다른 요소와의 결합 없이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가리킨다. 단어는 자립 형태소와 비슷하지만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라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립 형식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흔히 단어를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조건만으로 단어를 다 규정짓기는 어렵다. 어떤 언어 형식이 단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절을 단어로 보기도 하며 더 분석된 단위를 단어로 취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시경 등의 초기 문법가들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를 '철수, 가, 책, 을, 읽, 었다'의 여섯 개의 단어로 쪼개진 것으로 보았지만, 최현배 등 한글 맞춤법 제정에 참여하였던 학자들은 '철수, 가, 책, 을, 읽었[가] 다'의 다섯으로 보았다. '-었-'과 같은 의존 형태소가 '읽-'과 같이 자립성이 없는 말에 붙을 때에는 단어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승녕 등의 역사 문법가들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의 셋으로 나누었다.

역사 문법가들은 의존 형태소인 '가, 를'을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시경이나 최현배 등의 학자들은 단어로 인정한 것이다. '가, 를'이 '읽었다'에서의 '-었다'처럼 실질 형태소에 붙는다는 점에 근거한다면 단어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으나 결합 대상인 실질 형태소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단어로 처리한 것이다. 곧 '가, 를'이 붙는 말은 자립 형태소인데 반하여 '-었다'가 붙는 말은 의존 형태소이다. '읽-'은 '-었다'와 결합하여야만 자립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철수, 책'은 그 자체로도 자립성이 있다. 따라서 '가, 를'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성은 '가, 를' 앞에 다른 단어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철수가 책만을 읽었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책'과 '을' 사이에 다른 단어인 '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책'과 '을'은 분리성을 가진다. 하지만 '책상'과 같은 경우는 '책'과 '상'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 단어는 그 내부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분리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어는 그 내부에서는 분리성이 없지만 다른 단어와의 경계에서는 분리성이 있는 언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5 10월 고3전국연합] [47~50] 이익섭, '국어학개설'

1.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 점]

- ① 실질 형태소는 모두 자립성을 지닌다.
- ② 단어는 그 자체 내에서는 분리성이 없다.
- ③ 자립 형태소는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다.
- ④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의 언어 단위이다.
- ⑤ 자립 형식은 문장에 독립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2005 10월 고3전국연합] 47. [출제의도] 정보를 개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 ㉠ 지문에서 '읽었다'에서 '-었다'는 실질 형태소에 붙는 의존 형태소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읽-'은 실질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읽-'은 '읽으니, 읽고, 읽게'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하는 의존 형태소이라는 점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가 모두 자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2.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점]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설명하는 용어의 개념을 밝히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갖추어야 할 조건을 중심으로 대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설명 대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후 그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2005 10월 고3전국연합] 4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답] ⑤
 형태소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단어의 판별 기준이 자립성과 분리성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글은 분리성이 단어의 판별 기준임을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한 것을 간단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3. [보기] (가)를 읽고 나서 보인 반응이다.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사람은?

[가]

“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라는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민주 : 주시경 선생님이라면 이 문장에서 ‘노래하면서’의 ‘면서’는 단어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군.

주현 : 최현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볼 거야. ‘노래하면서’는 그냥 한 단어로 간주할 거야.

현진 : 이승녕 선생님은 명사 ‘사람’과 조사 ‘이’가 결합된 ‘사람이’를 한 단어로 보았겠군.

진수 : 하지만 최현배 선생님의 단어관에 따르면 ‘사람’과 ‘이’는 각각 단어로 보아야겠지.

수정 : 주시경 선생님은 이 문장을 모두 여섯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을 거야.

- ① 민주
- ② 주현
- ③ 현진
- ④ 진수
- ⑤ 수정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4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답] ⑤
 주시경은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어미부 전체를 단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도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는 ‘한, 사람, 이, 노래하, 면서, 가, 오’의 7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된다.

4.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려내는
- ② 뽑아내는
- ③ 골라내는
- ④ 끌어내는
- ⑤ 갈라내는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50. [출제의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대체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답] ①
 판별(判別)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한다는 뜻인데, 이 문맥 속에서는 여럿 가운데서 일정한 것을 골라낸다는 뜻으로 쓰였다.

- 1) [2005 10월 고3전국연합] 47. [출제의도] 정보를 개괄적으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답] ①
 지문에서 ‘읽었다’에서 ‘-었다’는 실질 형태소에 붙는 의존 형태소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읽-’은 실질 형태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읽-’은 ‘읽으니, 읽고, 읽게’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하는 의존 형태소이라는 점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가 모두 자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2)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4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답] ⑤
 형태소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단어의 판별 기준이 자립성과 분리성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이 글은 분리성이 단어의 판별 기준임을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한 것을 간단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 3)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4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답] ⑤
 주시경은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어미부 전체를 단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도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는 ‘한, 사람, 이, 노래하, 면서, 가, 오’의 7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된다.
- 4) [2005년 10월 고3전국연합] 50. [출제의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대체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답] ①
 판별()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구별한다는 뜻인데, 이 문맥 속에서는 여럿 가운데서 일정한 것을 골라낸다는 뜻으로 쓰였다.